

제목

최근 일본의 경제·금융 동향(4월)

< 실물부문 >

- (동향) '25.2월중 일본경제는 민간 소비 및 생산 등 일부 지표가 전월의 부진에서 반등하였으나,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투자는 보합권 내에서 횡보하는 등 엇갈리는 모습
 - 고용은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임금은 명목임금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실질임금은 감소폭이 축소
 -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전년동월대비)는 식료품 가격의 높은 상승세 지속 등으로 오름폭이 확대
- (전망) 향후 일본경제는 양호한 고용상황 및 임금인상 등에 힘입은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높아진 모습
 - IMF(4.22일)는 '25년 및 '26년(calendar year) 성장률을 모두 0.6%로 전망하며 직전 전망('25.1월) 대비 각각 0.5%p 및 0.2%p 하향조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은 식료품 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2% 후반대의 오름세를 지속한 이후 하반기 들어 점차 오름폭이 축소될 전망

< 금융부문 >

- (금융·외환시장) 주가는 월초 급락 후 소폭 상승하고 엔/달러환율은 하락(엔화강세)하였으며 장기금리는 1.319%로 급락 후 소폭 회복
 - 은행 예금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정책금리 인상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전월 대비 크게 상승
- (금융정책) 무담보 콜금리(O/N)는 일본은행 정책금리(0.5%) 수준을 소폭 하회하는 0.476~0.477% 수준에서 움직임

작성자: 동경사무소 최재혁 차장(실물), 이소윤 과장(금융), 최호식 과장(통화정책)

I. 동향

1 실물경제 동향

【소비 : 개선】

□ '25.2월중 주요 소비지표는 전월 부진에서 개선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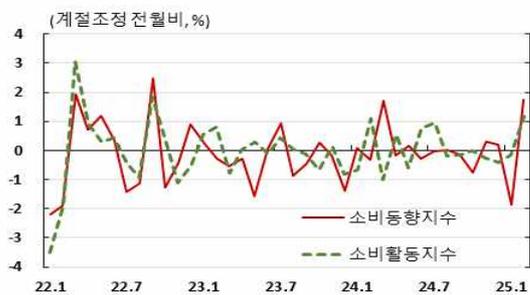
- 가구소비동향지수(실질, SA, 전월대비)*와 소비활동지수(실질, SA, 여행수지 조정, 전월대비)**는 전월대비 각각 1.7% 및 1.2% 증가

* 24.12월 0.2% → 25.1월 -1.9% → 2월 1.7% ** -0.4% → -0.1% → 1.2%

- 명목 기준의 소매판매액*(전년동월대비)은 증가세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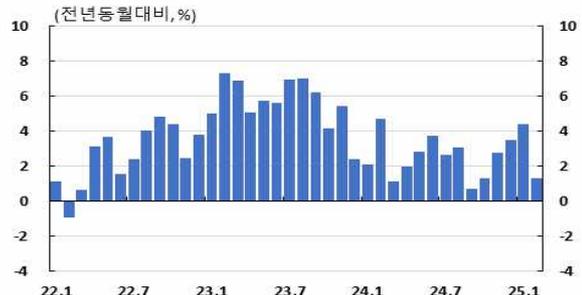
* 3.5% → 4.4% → 1.3%

가구소비동향지수¹⁾ 및 소비활동지수¹⁾²⁾



주: 1) 실질 2) 여행수지 조정
자료: 총무성, 일본은행

소매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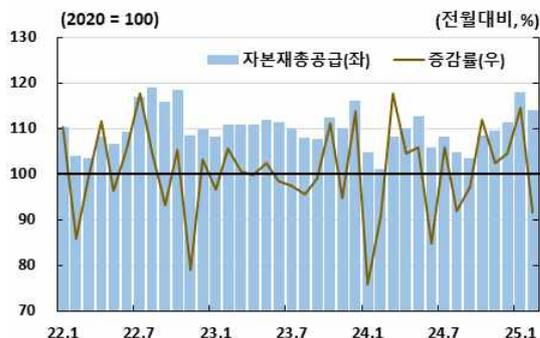
자료: 경제산업성

【설비투자 혼조, 건설투자 개선】

- 2월중 자본재총공급*(SA, 전월대비)은 감소로 전환된 반면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민간기계수주액**(선박·전력제외, SA, 전월대비)은 증가 전환

* 24.12월 1.8% → 25.1월 5.8% → 2월 -3.3% ** -0.8% → -3.5% → 4.3%

자본재총공급



자료: 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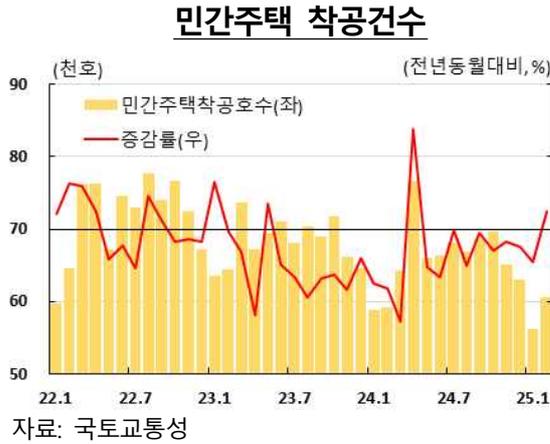
기계수주액



자료: 내각부

□ 2월중 민간주택 착공건수*(전년동월대비)는 10개월만에 증가하였으며 공공건설 기성액**(전년동월대비)은 양호한 증가세 지속

* 24.12월 -2.5% → 25.1월 -4.6% → 2월 2.4% ** 4.1% → 4.0% →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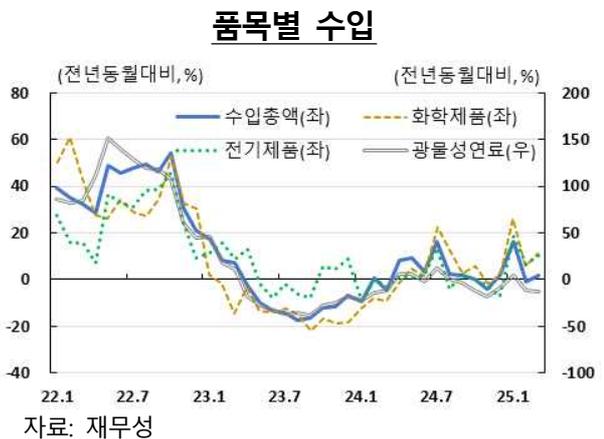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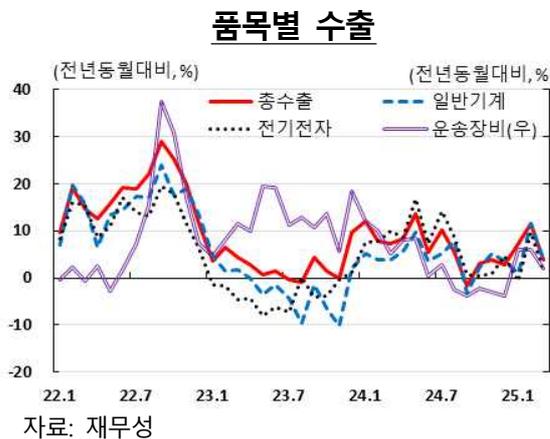
【수출 : 증가세 둔화】

□ '25.3월중 수출(통관금액 기준, 전년동월대비)은 일반기계(25.2월 11.6% → 3월 3.8%), 운송장비(11.7% → 4.2%) 등 주력 품목의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둔화(25.1월 7.3% → 2월 11.4% → 3월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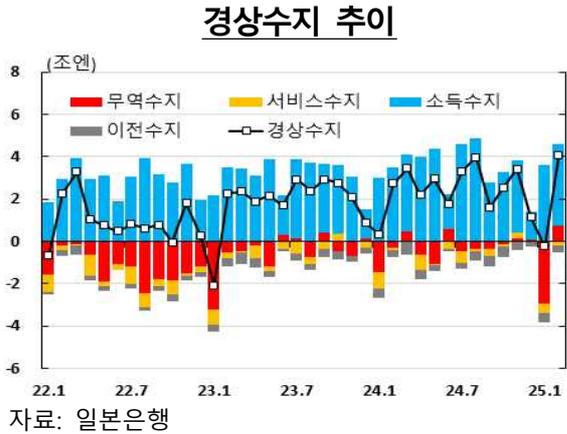
○ 수출수량지수(2020=100, 전년동월대비)는 감소(-1.7% → 2.9% → -0.8%)

□ 3월중 수입(통관금액 기준, 전년동월대비)은 광물성 연료(-11.1% → -12.5%)의 큰 폭 감소세 지속 등에도 화학제품(6.0% → 11.3%), 전기제품(6.5% → 10.5%) 등이 증가하면서 소폭 증가(25.1월 16.3% → 2월 -0.7% → 3월 2.0%)

○ 수입수량지수(2020=100, 전년동월대비)는 증가(8.5% → -4.1% → 5.3%)



- 2월중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으로 큰 폭의 흑자 기록(24.12월 1.1조엔 → 25.1월 -0.2조엔 → 2월 4.1조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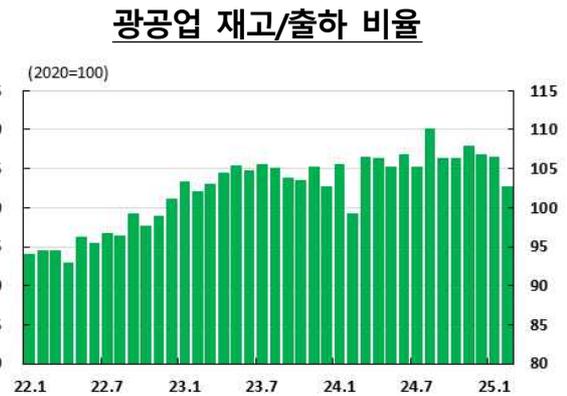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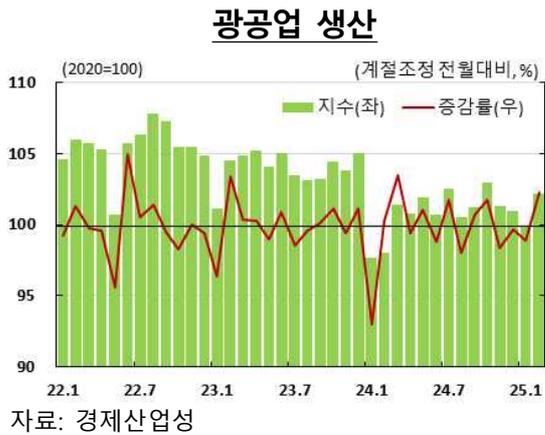
경상수지 추이 (조엔)

| | 2024 | | | | 2025 | | |
|-------|------|------|------|------|------|-------|------|
| | 1/4 | 2/4 | 3/4 | 4/4 | 12월 | 25.1월 | 2월 |
| 경상수지 | 6.5 | 6.9 | 8.0 | 7.1 | 1.1 | -0.2 | 4.1 |
| 무역수지 | -1.3 | -1.2 | -1.0 | 0.0 | 0.1 | -2.9 | 0.7 |
| 수출 | 24.9 | 25.8 | 26.6 | 27.8 | 9.5 | 7.5 | 9.0 |
| 수입 | 26.2 | 26.9 | 27.8 | 27.8 | 9.5 | 10.4 | 8.3 |
| 서비스수지 | -0.9 | -1.1 | -1.0 | 0.2 | 0.0 | -0.5 | -0.2 |
| 소득수지 | 10.1 | 10.0 | 10.6 | 8.0 | 1.3 | 3.6 | 3.9 |

자료: 일본은행

【생산 : 증가】

- 2월중 광공업 생산(SA, 전월대비)은 생산용기계(8.3%), 전자부품(9.4%) 등을 중심으로 증가(24.12월 -0.3% → 25.1월 -1.1% → 2월 2.3%)
- 2월중 재고/출하 비율(재고율, 2020=100)은 하락(106.9 → 106.5 → 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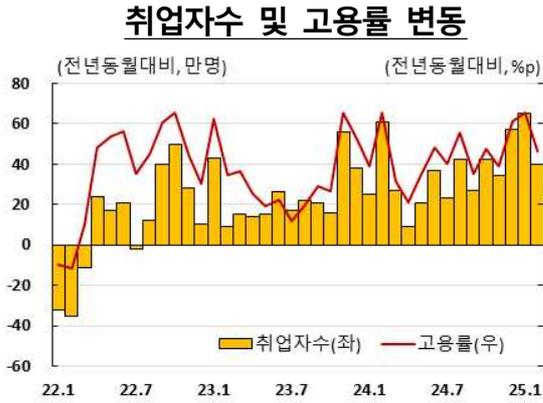


【고용 : 호조, 임금 : 증가세 확대】

- 2월중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증가하였으며, 고용률** (취업자/15세 이상인구)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 전년동월대비 증감(만명): 24.12월 +57 → 25.1월 +65 → 2월 +40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p): +0.6 → +0.7 → +0.5

- 실업률*(SA)은 2.4%로 0.1%p 하락하였으며,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자수/유효구직자수, SA)도 하락

* 24.12월 2.5% → 25.1월 2.5% → 2월 2.4% ** 1.25배 → 1.26배 → 1.24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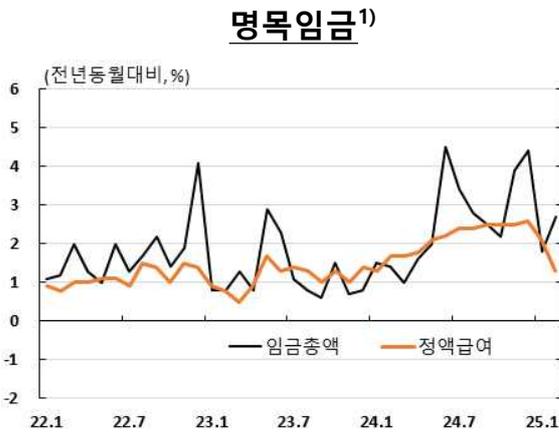
자료: 총무성



자료: 총무성, 후생노동성

- 2월 중 근로자 임금은 명목임금*(전년동월대비)의 오름폭이 확대되고, 실질임금**(전년동월대비)의 감소폭은 축소

* 24.12월 4.4% → 25.1월 1.8% → 2월 2.7% ** 0.3% → -2.8% → -1.5%



주: 1)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자료: 후생노동성

【물가 : 오름세 확대】

- '25.3월 중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전년동월대비)는 식료품 가격 상승폭 확대*(2월 5.6% → 3월 6.2%, 신선식품 제외) 등으로 오름폭이 확대(25.1월 3.2% → 2월 3.0% → 3월 3.2%)

* 쌀가격은 92.1% 상승하여 물가상승률 통계 소급이 가능한 197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 재화(4.9% → 4.6% → 4.9%, 신선식품 제외) 및 서비스(1.4% → 1.3% → 1.4%) 모두 상승세가 확대

○ 신선식품·에너지 제외 지수도 오름폭이 확대(2.5% → 2.6%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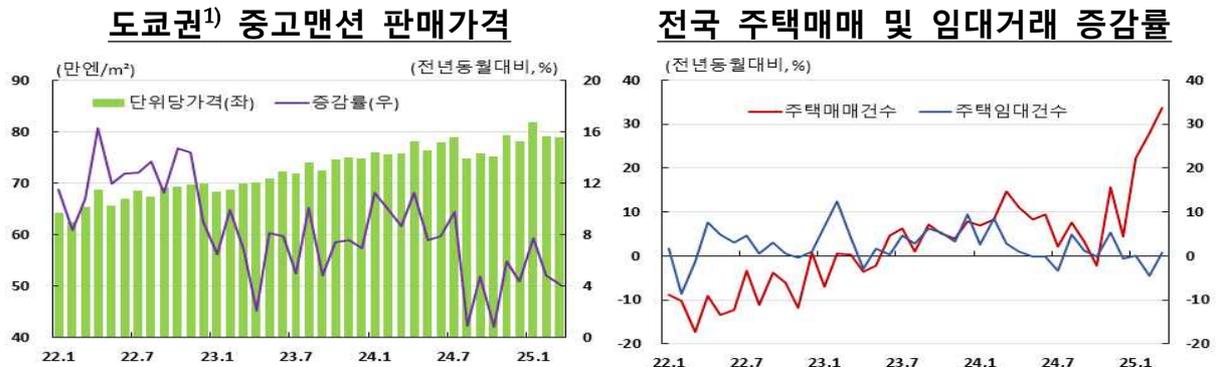


자료: 총무성

□ 3월중 도쿄권 주택가격(중고매선 기준, 전년동월대비)은 상승세가 둔화(25.1월 7.8% → 2월 4.8% → 3월 4.1%)

○ 3월중 전국 주택 매매* 건수는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임대** 건수는 소폭 증가

* 25.1월 22.2% → 2월 28.0% → 3월 33.7% ** 0.1% → -4.5% → 0.7%



주: 1)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자료: 동일본부동산유통기구

자료: 부동산유통추진센터

주요 경기지표 동향

| | 민간소비 | | 설비투자 | 건설 | | 무역 | | 생산 | 고용 | |
|--------|---------------------|---------------------|-----------------------|-----------------------|---------------------|----------------------|----------------------|----------------------|---------------------|-------------------------|
| | 소비 동향 ¹⁾ | 소비 활동 ¹⁾ | 자본재 총공급 ¹⁾ | 민간주택 착공 ²⁾ | 공공 건설 ²⁾ | 수출[물량] ²⁾ | 수입[물량] ²⁾ | 광공업 생산 ¹⁾ | 고용률 ²⁾³⁾ | 명목임금 ²⁾ [실질] |
| 24.1/4 | -0.5 | -0.7 | -7.2 | -9.6 | -5.5 | 8.8[-0.7] | -4.8[-6.0] | -5.1 | 0.5 | 1.3[-1.6] |
| 2/4 | 0.9 | 0.1 | 4.6 | 0.5 | 3.0 | 8.8[-3.5] | 7.5[-3.5] | 2.1 | 0.3 | 3.0[-0.2] |
| 3/4 | -0.2 | 1.1 | -3.6 | -2.0 | 3.2 | 4.5[-5.1] | 6.9[-0.3] | 0.3 | 0.4 | 2.9[-0.3] |
| 4/4 | -0.6 | -0.5 | 4.0 | -2.4 | 3.8 | 3.2[-0.9] | -0.5[-0.4] | 0.4 | 0.5 | 3.7[0.4] |
| 24.12월 | 0.2 | -0.4 | 1.8 | -2.5 | 4.1 | 2.7[-2.6] | 1.8[1.8] | -0.3 | 0.6 | 4.4[0.3] |
| 25. 1월 | -1.9 | -0.1 | 5.8 | -4.6 | 4.0 | 7.3[-1.7] | 16.3[8.5] | -1.1 | 0.7 | 1.8[-2.8] |
| 2월 | 1.7 | 1.2 | -3.3 | 2.4 | 4.0 | 11.4[2.9] | -0.7[-4.1] | 2.3 | 0.5 | 3.1[-1.2] |
| 3월 | ... | ... | ... | ... | ... | 3.9[-0.8] | 2.0[5.3] | ... | ... | ... |

주: 1) 전기대비(SA), 2) 전년동기대비, 3) %p

□ 한편 일본 정부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미국 통상 정책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고용·소득환경 개선, 각종 경제정책의 효과 등으로 향후에도 완만한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정책 영향에 따른 하방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내각부, 4.18일)

* 경기가 일부에서 담보상태에 있으나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며 고용·소득환경 개선, 각종 경제정책의 효과 등으로 향후에도 완만한 회복을 지속할 것(전월)

○ 부문별로는 개인소비에 대해 '소비심리 약화 가능성'을 명시하였으며, **업황판단은 '개선'에서 '대체로 보합'으로 하향**

일본정부의 경제부문별 기초판단

| | '25.3월 | 4월 |
|----------|------------------------|---|
| 개인소비 | 일부 담보가 남았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소비심리가 약화되고 있지만, 고용·소득 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복 움직임이 보임 |
| 설비투자 |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좌동) |
| 주택건설 | 대체로 보합 | (좌동) |
| 공공투자 | 견조하게 추이하고 있음 | (좌동) |
| 수출 |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좌동) |
| 수입 | 대체로 보합을 나타냄 | (좌동) |
| 무역·서비스수지 | 적자를 나타냄 | (좌동) |
| 생산 | 보합을 나타냄 | (좌동) |
| 기업수익 | 개선되고 있음 | (좌동) |
| 업황판단 | 개선되고 있음 | 대체로 보합을 나타냄 |
| 도산건수 | 증가세 둔화 | (좌동) |
| 고용사정 | 개선의 움직임이 보임 | (좌동) |
| 국내기업물가 | 최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좌동) |
| 소비자물가 | 최근 상승하고 있음 | (좌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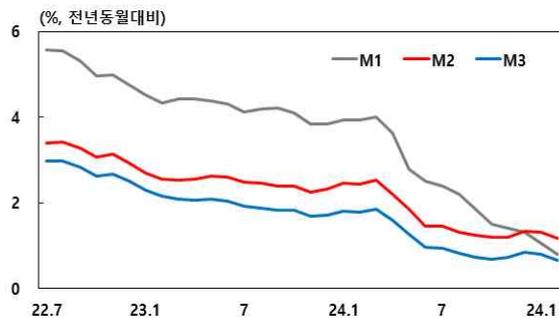
자료 :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5.4월)

2 금융시장 동향

□ (통화량 및 은행대출) 통화량 및 은행대출은 증가세가 둔화

- 25.3월중 통화(M2, 평잔기준) 증가율은 0.8%로 전월(1.2%)대비 다소 하락
- 25.3월중 은행(은행 및 신용금고 기준)대출 증가율은 2.8%로 전월(3.0%) 대비 하락

M1, M2 및 M3 증가율



자료: 일본은행

은행대출잔액(평잔)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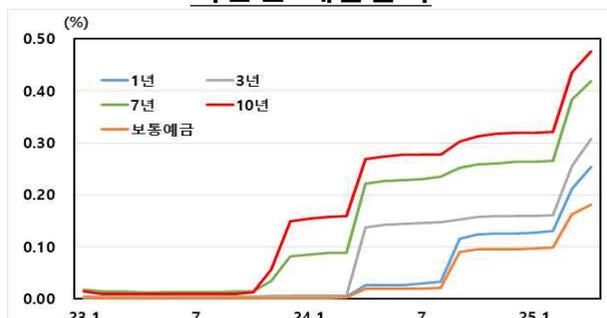
주: 1) 은행 및 신용금고 기준 자료: 일본은행

□ (예금·대출금리) 예금금리는 전월에 이어 모든 만기구간에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정책금리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면서 전월 대비 크게 상승

- [예금금리] 3월중 1년 정기예금금리 평균과 보통예금은 0.253%, 0.182%로 전월대비 각각 0.041%p, 0.002%p로 상승하였으며 장기(10년) 정기예금금리도 전월(0.476%) 대비 상승(+0.04%p)
- [주택담보대출금리] 변동금리(대형은행 기준)는 3월중 전월대비 23bp 상승한 0.682%를 기록하였으며, 고정 10년(2.163%)도 같은 기간 국채 10년 수익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23bp)하여 고정 35년 금리(1.94%)를 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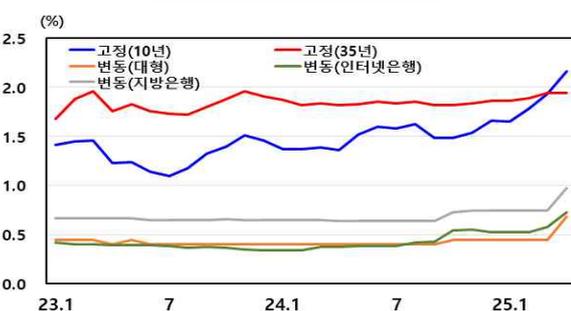
— 인터넷은행(0.727%) 및 지방은행(0.975%) 변동금리도 모두 상승

기간별 예금금리



주: 1) 1,000만엔 이상 기준 자료: 일본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¹⁾



주: 1) 평균 자료: MFS

- (주요 가격변수) 주가는 월초 급락후 회복한 가운데, 엔/달러환율은 하락(엔화강세)하였으며 장기금리는 일본은행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금융시장 가격변수

| | 23년말 | 24.6월말 | 24.12월말 | 25.4.28일(24년말대비) | 연중 최고 | 연중 최저 |
|------------------------|--------|--------|---------|------------------|--------------|--------------|
| 환율(엔/달러) | 141.0 | 160.9 | 156.8 | 143.67(-8.4%) | 158.3(1.8일) | 140.3(4.22일) |
| 주가 ¹⁾ (엔) | 33,464 | 39,583 | 39,895 | 35,840(-10.2%) | 40,083(1.7일) | 31,136(4.7일) |
| 장기금리 ²⁾ (%) | 0.614 | 1.057 | 1.101 | 1.319(+0.218%p) | 1.589(3.27일) | 1.101(1.3일) |
| 무담보콜금리(O/N)(%) | -0.039 | 0.076 | 0.227 | 0.477(+0.25%p) | 0.485(2,12일) | 0.227(1.24일) |

주: 1) Nikkei225 2) 일본국채 10년물

자료: 일본은행, Bloomberg

- 4월중 주가(닛케이 지수)는 미중 양국간 무역마찰 심화에 따른 강한 리스크 회피 심리가 과급된 상황에서 미 증시 급락*, 엔고·달러 약세에 따른 주가지수 선물 매도 등으로 월초 급락하여 1년 5개월 만의 최저치(31,136.58, 4.7일)를 기록 후 무역마찰 완화 기대 등으로 다소 회복하는 모습

*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 되어 있는데다 미국의 주요 테크기업의 생산기반이 위치한 국가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른 실적악화 우려 등이 확대된 데에 주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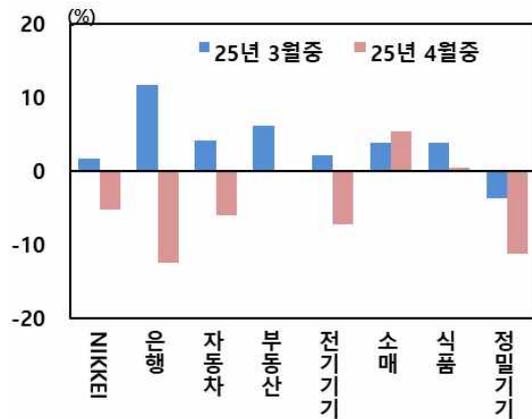
- 업종별로는 은행업이 채권 시장에서의 장기금리 급락에 따라 큰 폭의 하락으로 전환하였고, 정밀기기업도 추가관세 및 대중 수출규제를 통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악화 우려로 하락폭이 확대된 반면, 상대적으로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 내수업종인 소매업, 식품업 등은 상승

닛케이 지수



자료: Bloomberg

업종별 상승률



주: 1) 업종별은 닛케이500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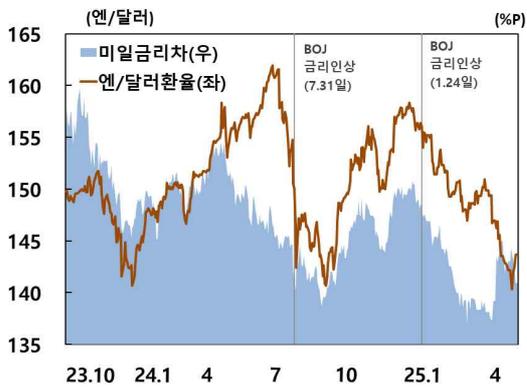
- 4월중 엔/달러 환율은 무역마찰 및 미연준의 독립성 염려*에 따른 주요통화(엔,유로) 대비 달러화매도 우세, 미일 관세교섭시 엔저시정요구 예상에 따른 선물매입확대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하락(엔화 강세)를 보이다가 미·중긴장완화 분위기 조성 등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소폭 축소

* 트럼프 대통령의 '예방적 금리인하' 요구, 제롬 파월(미연준 의장) 해임 검토 발언 등

— 비상업목적 엔화선물 포지션(+ 순매수, - 순매도)은 3개월째 순매수폭을 확대

* 2.4일(순매수 전환) +1.8만계약 → 3.4일 +13.3만계약 → 4.22 +17.8만계약

엔/달러 환율 및 내외금리차



자료: Bloomberg

엔화선물 포지션



자료: Bloomberg

- 4월중 장기금리(국채 10년)는 연초 상승기조에서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경향,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 등으로 급락 반전 후 경계심리 완화에 따른 주가 상승, 일본은행 정책금리 인상 기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

* 4월중 장기금리는 전월말 1.589%(3.27일) 대비 1.262%(4.8일)로 큰 하락(21%)을 기록 후 소폭 회복하여 4.28일 기준 장기금리는 1.319%

— 만기별로는 장기보다는 단기 금리(3년이하)가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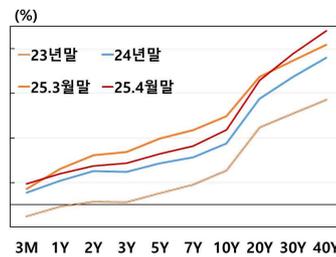
- 4월중 단기금리(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는 일본은행 정책금리(0.5%) 수준을 소폭 하회하는 0.476~0.477% 수준에서 움직임

국채(10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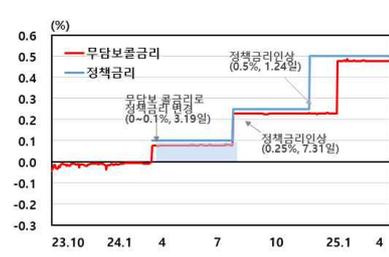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수익률 곡선¹⁾



자료: Bloomberg

무담보 콜금리(O/N) 추이



자료: 일본은행

□ (금융정책) '25.3월중 일본은행의 자금공급(본원통화)은 전년동월대비 3.1% 감소하여 7개월 연속 감소

○ 자금공급 주요 요인인 국채매입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당좌예금의 감소세가 지속 ('25.1월 -3.0% → 2월 -1.9% → 3월 -3.4%)

— 3월중 부리대상* 일본은행 당좌예금 규모(당월 16일~익월 15일 평잔)는 506.2조엔으로 전월(506.1조엔)과 비슷한 수준

* 일본은행은 24.3월부터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금리(4.30일 현재 0.50%)를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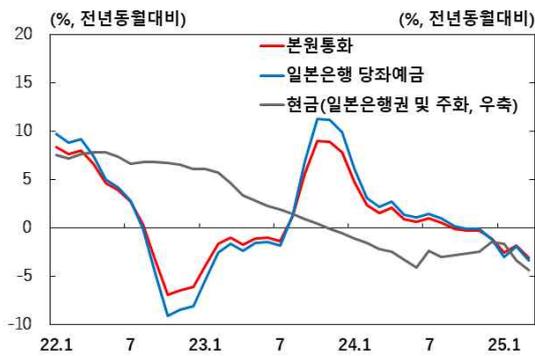
— 현금통화도 감소세를 지속('25.1월 -0.7% → 2월 -1.3% → 3월 -1.7%)

○ 3월중 일본은행의 장기국채 매입규모*는 4.3조엔으로 전월(4.4조엔)과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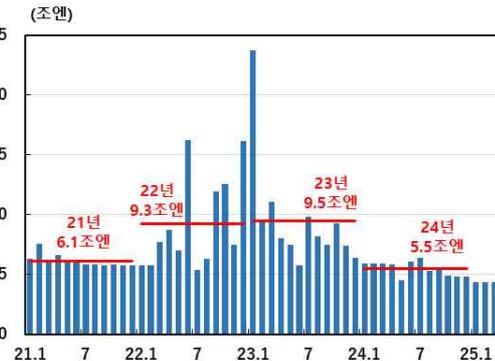
*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발표한 장기국채 매입 감액 계획(월 매입액을 매분기 약 0.4조원씩 감액)에 따라 감소

— 장기국채 보유잔액은 매입규모가 만기도래분(3월 16.9조엔)을 하회하면서 전월보다 감소(586.8조엔→ 574.2조엔)

본원통화(평잔) 증가율



장기국채 매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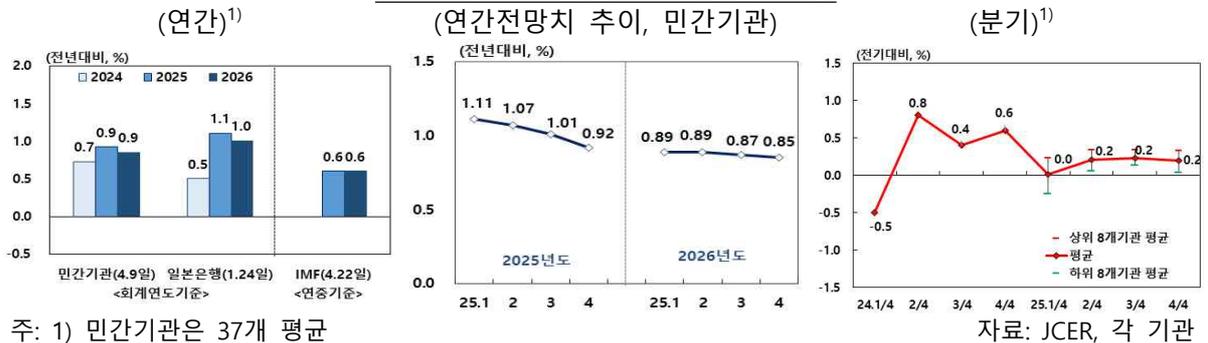


자료: 일본은행

II. 전망

- 향후 일본경제는 양호한 고용상황 및 임금인상 등에 힘입은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높아진 모습
 - 물가상승세 지속 및 실질임금 회복 지연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 가능성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이 상존
 - IMF(4.22일)는 '25년 및 '26년(calendar year) 성장률을 모두 0.6%로 전망하며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 및 상호관세 관련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직전 전망('25.1월) 대비 각각 0.5%p 및 0.2%p 하향조정

주요 기관별 실질GDP성장률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은 식료품 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2% 후반대의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
 - IMF는 '25년 및 '26년 물가상승률(CPI종합)을 각각 2.4% 및 1.7%로 전망하며 1월 전망 대비 '25년은 0.4%p 상향조정하고 '26년은 0.3%p 하향조정
 - 분기별로는 2분기에도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한 이후 점차 오름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계연도 변경으로 가격 조정이 예상되는 4월 물가상승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 전망

